

# 골굴 석굴과 인도 카를라 석굴의 비교고찰

주수완\*

- I. 머리말
- II. 카를라 석굴사원의 현상과 특징
- III. 인도 석굴사원을 통해본 골굴 석굴의 위상
- I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석굴사원의 개착은 아마도 군위 삼존석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의 수도 공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혈암이 있었지만 대체로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한 것이었고, 인공적으로 굴을 개착한 것은 군위 삼존석굴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석굴사원 개착이 암반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축조형의 석굴형태로 변형되어 칠불암이나 석굴암, 혹은 고려시대 미륵대원과 같은 형식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아주 드물게 경주 골굴사 석굴사원은 자연동굴을 적극 이용한 석굴사원으로서 이와 같은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sup>1)</sup>

이렇게 소중한 불교유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조각상이 마애불 1 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빈 석굴로 남아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게도 한다. 언뜻 기대되기는 아잔타나 엘로라 석굴처럼 각 굴마다 화려한 벽화 및 조각상이 남아있는 것이지만, 골굴석굴은 자연적인 동굴지형에 인위적으로 일부 확장하여 공간을 형성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와 같은 조형작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이 골굴사 석굴사원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 골굴사 석굴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에 집중된 공간이고, 따라서 햇빛과 비를 가려줄 정도로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시야를 정면으로 집중시켜 앞에 펼쳐진 자연을 관상하며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한 분위기를 제

\* 고려대·서울대 강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1) 골굴사의 석굴사원적 성격에 대해서는 문명대, 『토함산석굴』(한언, 2000), pp.182~183 참조.

공하고 있어 흥미롭다. 정시한의 『산중일기』에 의하면 이들 승방굴들에는 실제 스님들이 거처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원래 인도의 석굴사원은 더위를 피해 승려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석굴사원이 겨울 등에는 생활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승려들의 직접적인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용문석굴이나 운강석굴 등에는 불상을 모신 석굴 위주로 뚫려 있고, 아잔타 석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승방굴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골굴암 석굴에는 실제 승려들이 거처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어 흥미롭다. 어쩌면 정시한이 골굴암을 찾았을 때는 5 월이어서 승려들이 굴에 거처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름과 가을을 나고 겨울에는 다시 지면으로 내려와 별도의 공간에서 수행했을 수도 있다. 물론 따뜻한 날이라도 골굴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굴 앞에 목조전각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도의 석굴 사원 중에서 초기 사례에 속하는 카를라 석굴과 비교하여 현재의 골굴사 석굴을 수행굴의 측면에서 비교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카를라 석굴사원의 현상과 특징

카를라 석굴은 인도 서해안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면 로나발라리는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마치 골굴사가 동해안에서 경주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것과 서로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겠다.<sup>3)</sup> 카를라 석굴의 이러한 입지는 서방세계로부터의 해상교통로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신라의 감포로부터 경주로 이어지던 고대 교통로상에 골굴사가 위치한 것과 상통한다.<sup>4)</sup> 과거 진흥왕대에 사포(울산)에 도착한 인도의 아유왕이 보냈다고 하는 배로부터 구리를 옮겨 경주로 들여와 황룡사 장육상을 만드는데 사용한 적이 있던 경주 길이 남쪽 유입로였다면, 이 길은 동쪽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카를라 석굴에는 실제로 많은 야버나, 즉 그리스 계통 사람들이 시주한 흔적이 보이는데, 모두 교역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추정된다. 신라의 사포-경주 노선이 상업적 무역로였는지, 나아가 바다를 통한 교역이 얼마나 활발했는

2) 정시한 저, 김성한 역주, 『산중일기』, 국학자료원, 1999, pp.333~334.

3) 카를라 석굴의 개요에 대해서는 Dulari Qureshi, *Rock-Cut Temples of Western India*, Bharatiya Kala Prakashan, 2009 참조.

4) 불교와 교역로의 지형학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Jason Neelis, *Early Buddhist Transmission and Trade Networks: Mobility and Exchange within and beyond the Northwestern Borderlands of South Asia*, Brill, 2011.



도1 카를라 석굴 비하라 구역 전경



도2 골굴사 석굴사원 전경

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이 길을 다니던 사람들이 골굴사의 주요 시주자였을 것이다.<sup>5)</sup>

카를라 석굴의 특징은 전체 석굴에서 대규모의 차이티야당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도 1] 특히 이들 승방은 바위에 다층으로 뚫려있어 서로 층을 오가며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골굴암의 석굴들이 층층히 배치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도 3] 원칙적으로 초기불교에서 차이티야당은 비하라에서 수행하던 승려들과는 격리된 세속 불자들이 찾는 공간이었다. 비하라의 승려들이 일부 차이티야당을 찾은 불자들의 의식을 돕거나 설법을 해주는 일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차이티야당은 세속신자, 비하라는 승려들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특히 카를라 석굴은 인도 석굴사원의 역사에서도 초창기에 속하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이티야당으로 가는데 있어 굳이 비하라를 거쳐서 가야할 필요는 없다.

이에 반해 골굴암은 법당굴과 마애불 전실이 일종의 예불당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하라, 즉 승방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카를라 석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골굴사에서는 마애불까지 가는 길에 반드시 승방굴을 지나서 가게끔 되어 있다. 이는 마애불이 단지 세속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승방굴에 있는 수행자, 혹은 이들 승려들에게 공양하러 온 신도들 모두를 위한 예불대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카를라 석굴은 초창기 석굴이므로 승·속의 이원적인 구조를 지닌 것이고, 여기서 발전한 아잔타 석굴 등에서는 차이티야와 비하라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므로 이보다 후대인 골굴사 석굴은 자연스럽게 승방굴을 거쳐 마애불로 가는 양상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골굴사의 원형을 추정하는데 자주 인용되고 있는 『산중일기』에서 정시한 일행이 법당굴, 사자굴, 설법굴, 정청굴, 승당굴, 달마굴 등 골굴암의 여러 굴실 승방을 오가는 장면의 묘사는 마치 카를라 석

5) 카를라 석굴의 그리스인 시주자들에 대해서는 Vidya Dehejia, *Early Buddhist Rock Temples*, Thames & Hudson, 1972.

굴의 승방들을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별 무리없이 이해될 정도로 구성이 유사하다. 또한 이들 굴방의 편액 중에서 정청, 승당, 선당굴의 경우는 수행굴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당굴, 설법굴 등은 어느 정도 불전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글에 의하면 법당굴에서 법승스님이란 분과 잠시 앉아 있다가 밥을 지어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당굴에서 그랬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려왔다가 나머지 굴을 둘러본 것인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만약 법당굴 안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면 그곳 역시 기거와 수행을 겸한 수행굴로서의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관음굴로 되어 있는 굴이 정시한 일행이 첫번째로 방문했던 ‘법당굴’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진입로가 아닌 원래의 골굴사 진입로로 들어오면 관음굴 위치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굴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규모도 원래부터 가장 컸던 것이어서 골굴사에서 중심이 되는 굴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의 골굴사에는 최소한 2 개소 이상의 예불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당굴 및 마애불이 봉안된 굴이 그것이다.<sup>6)</sup>

한편 정시한이 몇몇 석굴에 들어섰을 때 그곳이 비어있었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 표현을 실제 굴 안에 텅 비어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 굴방은 그때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읽히고, 한편으로는 다만 참선수행을 위해 다른 일체의 것은 갖다놓지 않았다는 뜻이었을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승방굴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이 자리를 비워 비어있었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선당굴에 올랐을 때 그곳의 스님들이 나가고 없다는 표현으로서 ‘출거(出去)’라고 따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자의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정시한은 『산중일기』의 다른 기술에서 여타 사찰의 법당 혹은 불전을 방문하고 “공전(空殿)”, 혹은 “공루(空樓)”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표현이 다 ‘텅 비어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공전’이란 단지 “비어있는”의 의미가 아니라 ‘공’ 즉 불교를 의미하여 ‘불전’에 대해 유학자들이 부르던 이름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골굴암 기사에서는 ‘공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이라고만 되어 있어 말 그대로 비어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편액이 걸려있었던 것으로 보아 목조건각은 분명히 굴 앞에 세워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정시한이 본 모습은 조선시대 17 세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라시대 당시의 모습도 그와 같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하간 정시한의 방문 당시 비어있던 굴은 아마도 원래 수행하던 승려가 다른 곳으로 떠났거나

6)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 ① 정시한의 기록과 현 석굴과의 비교고찰은 손신영, 「골굴암 순례기를 통해본 골굴석굴의 원형탐색」, 『정통석굴사원 경주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 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 ② 법당굴의 크기나 평면·입면 및 차이티야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명대, 「골굴사의 석굴구조와 본존불상연구」, 『정통석굴사원 경주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한국미술사연구소, 2016)을 참조할 수 있다.



도3 카를라 석굴 승방굴 연결 계단



도4 카를라 석굴 차이티야당 내부 모식도

입적했거나, 혹은 특정의 승려에게 배당되지 않고 공용의 수행공간으로 쓰는 공간이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볼 수 있다.

카를라 석굴을 대표하는 차이티야당은 사타바하나 왕조가 기원전 2 세기에 건립한 석굴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도 석굴사에 있어 가장 규모가 큰 차이티야이자 초기 사례에 속하는 것이다.<sup>7)</sup> 이보다 더 이른 사례로는 바라바르 석굴군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최초기 석굴에서는 전실·후실의 개념이 남아 있었던 반면에 카를라 석굴은 말발굽형의 단일 평면으로 구성되었고 대신 열주로 내진과 외진이 나뉘는 구조이다.[도 4] 다만 전실도 있기는 하지만 바라바르 석굴보다 전실이 대폭 축소된 형태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입구가 2 중으로 확장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구조로 변화했다. 현재는 이 전실의 파사드가 붕괴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전실 바깥에는 석주가 세워져 있는데, 위에는 세 마리의 사자가 조각되어 있고, 현재는 없어졌지만 그 위에 범룡이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8)</sup>

석굴 내부의 가장 큰 특징은 천정의 늑재(肋材) 부분이 목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sup>9)</sup> 이것은 원래 이러한 석굴사원이 지상에 세워진 목조건축을 그대로 모방하여 굴 안에 건립한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초기 석굴사원의 특징이다. 이보다 이른 바라바르 석굴군에서는 아무런 조식이 없이 밋밋한 굴을 개착했으나 카를라 석굴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목조건축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내부에 봉안된 스투파 역시 상륜부를 목재로 구성하여 특이하다. 이것이 원래부터의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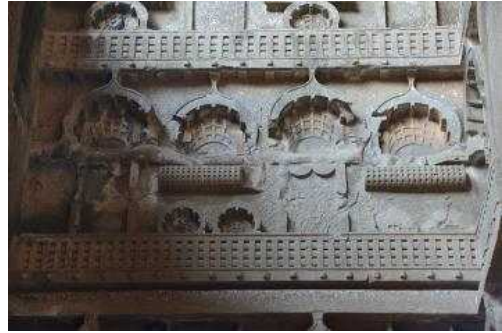
7) 카를라 석굴의 현상에 대해서는 James Fergusson, *The Rock-Cut Temples of India*,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Vol.8, 1846 참조.

8) 마우리아 시기로 편년되는 이 석주에 대해서는 Joanna Williams, A Recut Aśokan Capital and the Gupta Attitude towards the Past, *Artibus Asiae*, Vol.35, No.3, 1973.

9) 학술대회 발표에서는 이 목조부재를 서까래의 개념으로 설명했으나 이에 대해 이강근 선생님께서 리브 보울트의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해주신 덕분에 본 논고에서는 늑재라는 개념으로 정정했다. 조언을 주신 이강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도5 산서성 현공사 석굴의 목조전실구조



도6 카를라 석굴 전실의 목조사당 부조

재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서 천정에 목조부재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아 원래부터 이러한 양상을 띄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석굴은 아니지만 이러한 석조구조물에 목조부재를 함께 병용한 사례는 고구려 고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분 역시 기본적으로 무덤의 주인공이 생전에 살았던 주택을 그대로 지하에 재현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목조부재를 직접 이용하여 목조건축을 재현한 느낌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목조부재를 그림으로 대체하여 기둥과 공포를 회화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카를라 석굴 역시 원래는 목조였던 사당건축을 석굴에 옮겨오면서 목조 누재를 그대로 가져왔다가 점차 이 부분도 바위에 직접 새기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카를라 석굴의 이러한 목구조적 성격은 이후 동아시아 석굴사원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석굴 건축 앞에 세워진 목조전각은 석굴사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점도 제공했겠지만, 무엇보다 지상의 목조건축을 그대로 들여다 바위 사이에 끼워놓은 듯한 인상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시한이 골굴암을 묘사할 때 “단청된 전각 5,6 채가 바위 사이에 걸려있다”고 한 표현이 바로 이러한 정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분명히 전각들의 이름은 범당굴, 사자굴 등 “굴”로 되어 있지만, 정시한의 경우처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전각이 바위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아마도 중국 현공사(懸空寺)의 목조전실 구조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도 5] 이는 카를라 석굴에서 보는 것처럼 인도석굴사원의 초기부터 내려오는 매우 전통적인 개념이었다.[도 6]<sup>10)</sup>

10) 그 외 중국 영하지역의 수미산 석굴 및 일본의 가케쓰쿠리(懸造り) 방식과 비교한 글로는 한동수·이성호, 「경주 골굴암 석굴전실의 건축적 원형고찰」, 『정통석굴사원 경주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 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도7 카를라 석굴의 공양혈



도8 골굴사 석굴의 봉안혈

카를라 석굴 차이티야당에 봉안된 스투파와 앞 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데, 그 용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혹시 어떤 공양물을 봉안하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도 7] 흔히 부처에게 공양하는 물품으로서 6 물(六物), 즉, 쌀, 향, 등, 꽃, 과일, 차를 드는데, 아마 이중의 어떤 물품을 이 구멍에 넣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 다른 석굴에서는 공양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이와 같이 구멍을 뚫어 일종의 불박이 그릇을 만들어둔 것인지 의문이다.

6 물 공양 중에서 등공양의 흔적은 스투파 자체에서도 확인된다. 스투파 탑신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멍들마다 위로 검게 그을린 흔적이 보인다. 아마 이 안에 등을 넣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등을 따로 탑 앞에 두어 등을 올리지만, 카를라 석굴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석등에는 보통 하나의 등만 올리기 때문에 등 공양이 일상화된 인도에서는 석등 하나만으로는 신도들의 등 공양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등은 불을 붙이기 때문에 바닥에 두면 자칫 화상의 위험도 있으므로, 바닥에 설치된 구멍에는 등을 제외한 물품이 공양되었을 것 같다. 꽃이나 향유 등 흩어지기 쉬운 공양물을 모아놓을 수 있게 설치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골굴암의 기암괴석 사이에 있는 작은 바위구멍들도 일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추정해본다.[도 8]

더불어 비교되는 점은 카를라 석굴의 승방굴 영역에도 스투파 1 기가 봉안된 것이 있는데, 이 스투파와 뒤쪽으로 물길이가 조성되어 있는 점이다.[도 9] 이러한 일종의 배수로는 골굴암에서도 확인되는 바, 바위면에 다층구조로 굴을 조성하면서 위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수행공간 안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을 것이다. 카를라 석굴 승방굴 앞의 이 스투파는 수행공

간인 승방굴 앞에 봉안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특이하다. 이 스투파는 불탑이 아니라 승탑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스투파가 원래부터 승방굴을 뚫을 때 함께 바위를 깎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없었는데 추후에 별도의 바위로 깎아 옮겨온 것인지 불확실하다. 만약에 원래부터 만든 것이라면 이는 승탑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마치 원래부터 있던 바위인데 깨져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별도의 돌을 옮겨오면서 아래에 따로 돌을 괴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기반석 부분을 발굴해 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래의 바위라면 이렇게 탑신 부분만 떨어져 나가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옮겨온 스투파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약 이 스투파가 승탑이라면 카를라 석굴에서 수행하던 어떤 승려를 기념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가정은 마치 설총이 아버지 원효대사를 기리기 위해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골굴암의 어떤 굴에 와서 기거했다는 설화를 연상케 한다.<sup>11)</sup> 물론 원효대사가 워낙 유명한 고승이었기 때문이겠지만, 정시한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각 굴에 특정 승려가 머물고 있는 곳이라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각 굴을 배당 받은 승려가 있었고, 따라서 원효도 역시 골굴암에 기거하는 동안 전용의 굴을 배당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또한 원효스님이 입적한 뒤에는 다른 승려가 사용했던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하간 설총이 원했을 때 그 굴을 원효에 이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이후로도 원효를 기념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이어져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카를라 석굴 외에도 석굴 혹은 승방 안에 스투파가 봉안되는 방식은 간다라 지역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사)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실시한 파키스탄 탁실라의 조울리안 2사원지 발굴조사에서도 승방 안에 스투파가 조성된 사례가 조사된 바 있다.[도 10]<sup>12)</sup> 설총이 원효를 기념하여 만든 소조상은 비록 분황사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상징적 조형물이 원효가 기거하던 석굴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마치 카를라 석굴 비하라 입구의 스투파가 승려들의 예우를 받으며 존송되었을 것처럼 골굴암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면면히 계승되었을 것이다.

11) 그러나 원효가 수행했다는 설총의 집 인근에 위치했던 혈사는 설총이 신라에서 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월성 근처 행정기관 인근에서 출퇴근이 가능했어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산 인근 산록 어디였을 것으로 본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문경현, 「원효의 수도처에 대하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11, 1990. 그러나 원효가 그 외에도 팔공산 석굴암(근위석굴암) 등 팔공산 일대 석굴, 혹은 혈사에서 수행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아 그가 중창하였다고 하는 기림사 역시 그의 수도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12) 그밖에 모라모라두 사원지의 비하라 중 한 승방 안에 원형의 스투파가 봉안된 사례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카라테파 사원지에서도 승방 안에 스투파가 봉안된 사례가 있다. 한편 승려가 사용하던 승방을 진영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문명대, 「해인사 목조희랑조사 진영상의 고찰」, 『고고미술』 138·139, 1978.9 참조.





도9 카를라 석굴 승방굴 입구의 스투파



도10 조올리안2 사원지 승방 봉안 스투파

만약 카를라 석굴 비하라 앞의 스투파가 승탑이 아니라 불탑의 개념으로 봉안된 것이라면 이는 승방굴에서 수행하던 승려들 전용의 스투파로서 해석될 수 있다. 스투파나 불상은 공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승려들보다는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잔타 석굴 비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는 승방으로만 구성된 비하라에 굽타시대 들어서서 일부 비하라를 하나로 터서 불상을 봉안하는 사당으로 개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카를라 석굴은 이보다 이른 기원전 시기에 개착된 사원이므로 만약 비하라와 스투파가 정말로 이 시기에 함께 개착된 것이라면 이는 비하라와 차이티야가 결합된 이른 시기의 사례로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마침 카를라 석굴이 위치한 지역은 대중부가 유행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부파불교 당시의 승단에서 불탑에 관한 규정이 드문 가운데 대중부의 율장인 『마하승기율』에서는 불탑에 관한 규정이 보여 일찍부터 불탑과 교단과의 관계가 주목되어 왔기 때문이다.<sup>13)</sup> 특히 제자들에게도 불탑에 대한 공양을 허락하는 부분은 대중부의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답이 이루어지니 세존께서 과거의 부처님을 공양하시면서 곧 스스로 예배하셨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예배해도 되겠습니까?”

“되느니라”

그리고 곧 계송을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백천금의 재물로

보시를 행한다 해도

13) 이와 같은 사실은 카를라 석굴 인근의 작은 석굴사원에서 대중부와 관련된 비문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확인되었다. 에띠엔 라모뜨 저, 호진 역, 『인도불교사』 2, 시공사, 2006, pp.161~166.

하나의 착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부처님 답에 예배하는 것만 못하다.<sup>14)</sup>

이러한 지침은 원래 제자들에게 부처의 장례에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했던 지침과는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대중부의 이러한 특성, 즉, 일반 재가신자가 아닌 출가승려들도 불탑공양이 공덕이 된다는 개념이 아마도 카를라 석굴의 승방굴 바로 앞에 불탑을 두도록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다.

### Ⅲ. 인도 석굴사원을 통해본 골굴 석굴의 위상

골굴사 마에불의 연대는 대략 통일신라시대 후반으로 보고 있지만<sup>15)</sup> 골굴사 자체의 개착은 이미 삼국시대에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골굴암의 창건설화에서는 인도의 승려가 신라에 들어와 이러한 석굴사원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처럼 실제 인도의 승려가 도래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와 같은 석굴사원이 인도에서 유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옛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 특히 원효가 이곳에서 수행했었다는 기록이나 설총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원효를 추모했다는 이야기 등은 최소한 삼국 후반기에는 이곳이 사원으로서 운용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sup>16)</sup> 그렇게 본다면 군위삼존석굴보다 골굴암의 연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럴 경우 신라 최초의 석굴사원인 셈이다.

아마도 이곳에 석굴이 가장 먼저 개착될 수 있었던 것은 암질이 석회암질이어서 보다 쉽게 인공적인 조형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시도에 영향을 받아 군위 삼존석굴과 같은 본격적인 석굴이 시도되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석굴사원인 석굴암이 골굴사에서 가까운 토함산에 자리잡은 것도 이곳 골굴암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여하간 이렇게 이른 시기의 양상을 보이는 골굴사 석굴이 인도의 석굴사원 중에서도 이른 사례인 카를라 석굴사원과 유사한 측면으로서 같은 중층의 승방굴 형태라고 하더라도 아잔타나 엘로라와 같이 외형을 완전히 건축적으로 마감한 중층 승방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위면을 봐두고 그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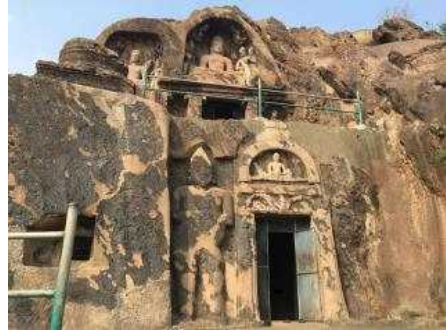
14) 동국역경원, 『마하승기율』2, 동국대학교 역경원, 1995, p.511.

15) 이 마에불의 편년을 대략 850년경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문명대, 앞의 글(2016) 참조.

16) 골굴사와 원효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원효의 기림사 중창에 대해서는 한상길, 「기림사의 역사와 사상」, 『불교미술』 15, 1998.



도11 진표율사의 수행처로 전하는 부사의방



도12 남인도 상카람 사원지 보자나콘다 석굴

에 승방굴을 개착한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카를라 석굴사원의 비교적 이른 시기 석굴로서의 특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골굴사 역시 우리나라에서 초기 석굴이라는 점에서 군위 삼존석굴과 같은 완전한 석굴 형태가 아닌 자연지형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작이 매우 이른 시기로 올라갈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실제 원효, 설총 이전에 이미 이 석굴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애불은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수행굴 중심의 수행도량으로서 그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된다. 정시한 일행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비어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오로지 면벽 수행을 하거나 혹은 절벽 바깥의 자연을 바라보며 참선하는 기능에 충실했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시점에 마애불이 조성된 것은 이곳이 수행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닐까. 원효대사가 기림사를 중창하고 이곳에서 즐겨 수행을 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일종의 성지, 순례지로서 인식되며 각광 받았고, 이곳을 찾는 대중들을 위한 마애불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반 자연동굴을 이용한 참선수행은 진표율사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표율사는 주로 금산사에 주석하면서 변산반도에 위치한 ‘부사의방장’에서 집중적인 참선수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이 ‘부사의방장’으로 알려진 곳은 자연암반에 위치한 깊지 않은 감실 같은 형태이다.[도 11] 인근에는 원효가 수행하던 원효방도 있었다고 이규보가 『동국이상국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효는 골굴암 같은 바위굴을 즐겨 수행처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골굴암은 이와 같은 수행공간이 층층히 밀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승단이 공동으로 참선 수행을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 같다.

카를라 석굴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서 남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비사카파트남 지역의 아나카



도13 카를라 석굴 전실 입구 마애조상



도14 골굴사 마애여래좌상

팔에 위치한 상카람 사원지를 골굴암 석굴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도 12], 카를라 석굴이 비하라 영역 끝에 차티야당을 둔 형식의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다면, 상카람 사원지는 층위적으로 승방굴들이 군집한 영역 맨 위에 차티야당을 두고, 그 입구 틈과높에 해당하는 곳에 선정인 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다. 카를라 석굴도 전실에 작은 감실을 두어 그 안에 불좌상을 새겨넣고 있지만[도 13], 상카람에서는 작은 불상들 대신 큰 불좌상 한 구와 두 협시로 구성된 삼존불을 상징적으로 조각하였다는 점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이렇게 변화된 측면은 골굴사 석굴의 배치와 보다 닮았다.[도 14] 많은 석굴들 위에 마애불좌상이 배치된 형식은 마치 상카람 석굴의 가람배치를 옮겨온 듯하다. 카를라 석굴이 남인도 사타바하나 왕조의 유산이라면 상카람 사원은 4 세기 이후의 남인도 지역 불교문화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sup>17)</sup> 차티야나 비하라 입구 상단에 이렇게 커다란 불상을 조성하는 전통과 굳이 결부시킨다면 바로 이 상카람 사원과 비교될 수 있고, 골굴암 석굴사원이 실제 인도에서 오래된 승려에 의해 개착되었다면 카를라나 상카람 석굴을 만든 남인도 불교문화권에서 건너온 승려였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17) 카를라 석굴을 포함한 사타바하나 시기 불교사원 문화에 대해서는 Sukumar Dutt, *Buddhist Monks and Monasteries*, Allen & Unwin, 1963.

## IV. 맺음말

창건설화에 의하면 골굴사는 인도에서 도래한 승려 광유(光有)에 의해 개착되었다고 전한다. 이는 실제 인도에서 온 승려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독특한 석굴사원이라는 형식이 인도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설화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석굴은 대부분 비어있고, 불상은 오로지 마애불만 남아있으며, 새롭게 증축된 목조전각이 골굴사의 새로운 도량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의 원형은 인도의 카를라 석굴사원에서도 비교적 유사한 개념으로 남아있다. 카를라 석굴은 입지에서부터 서부 해안가 뭍바이를 통해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해 감포로부터 경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골굴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해 보았다.

또한 자연암반을 뚫은 채, 내부만 중층으로 연결하여 다층의 비하라를 설치한 카를라 석굴의 승방굴 양상은 골굴암에서 층층히 바위 틈에 석굴을 배치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목조건축의 전실을 석굴마다 설치했다는 『산중일기』의 기록을 통해 석굴사원이면서도 목조건축의 구조를 강조한 카를라 석굴의 양상과 비교해 보았다. 더불어 다수의 승방굴에 속한 하나의 차이티야당, 혹은 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의 건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유사하다. 이러한 양상은 아잔타 석굴이나 엘로라 석굴처럼 다수의 차이티야와 비하라가 서로 교차되어 가며 여러 굴이 개착된 것과 비교되며, 카를라 석굴 외에 바자 석굴, 콘다네 석굴과 같은 초기 양상의 석굴사원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골굴사 석굴군이 이렇듯 구성적인 측면에서 인도 석굴사원과 상통하는 점이 많은 것은 자연적 입지 조건에 따른 보편적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는 분명히 카를라 석굴과 같은 이른 시기 석굴사원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골굴사는 현재는 각 석굴마다 작은 불상들을 봉안하여 일종의 불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를라 석굴처럼 수행굴이 중심이고 마애불이 바로 차이티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카를라 석굴 차이티야당의 정면 파사드 구조도 실제로는 목조전각의 구조적 형태를 그대로 석조로 변안한 것이다. 다만 내부의 천정을 구성하는 늑재 부분을 실제 목조로 설치하여 목조건축적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만약 현재 골굴암 석굴들 앞에 이와 같이 목조전각을 설치한다면 바위와 목조의 어울림은 마치 카를라 석굴 차이티야당 내부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다.

그 외 카를라 석굴과 골굴사 석굴의 바위에 새긴 배수로, 차이티야당 스투파에 돌아가면서 뿔린 등공양을 위한 구멍 및 바닥에 놓인 공양용 혈과 골굴사의 작은 바위구멍 등을 비교하면서 실제 골굴사가 어떤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는지 추정해보았다.

비록 기원전 2~1 세기 경에 개착된 카를라 석굴과 삼국시대 후반기에 개착된 골굴사가 동일한 개념에서 다루어질 수는 없지만, 인도의 불교문화가 항상 우리나라 불교도들에게 하나의 범본이 되고 지향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대를 초월한 모방과 영향은 항상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원적인 비교 고찰이 골굴사의 복원과 활용에 있어 미약하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 주제어(Key Words)

골굴사, 카를라 석굴, 석굴사원, 대중부, 목조전실, 불탑숭배, 불교지리

Golgulsa-cave temple, Karla Caves, Grottos, Mahāsāṃghika, wooden front room, stupa worship, buddhist geography

## 〈참고문헌〉

### 1. 원전

『마하승기율』

『삼국유사』

『산증일기』

### 2. 단행본

문명대, 『토함산석굴』, 한언, 2000.

에띠엔 라모트 저, 호진 역, 『인도불교사』 1·2, 시공사, 2006.

Sukumar Dutt, *Buddhist Monks and Monasteries*, Allen & Unwin, 1963.

문명대, 『한국의 불화』, 열화당, 1979.

Dulari Qureshi, *Rock-Cut Temples of Western India*, Bharatiya Kala Prakashan, 2009.

Jason Neelis, *Early Buddhist Transmission and Trade Networks: Mobility and Exchange within and beyond the Northwestern Borderlands of South Asia*, Brill, 2011.

Vidya Dehejia, *Early Buddhist Rock Temples*, Thames & Hudson, 1972.

Wu Hung, What is Bian Xia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unhuang art and Dunhuang Literatu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52, no.1, Harvard Yenching Institute, 1992.

### 3. 논문

손신영, 「골굴암 순례기를 통해본 골굴석굴의 원형탐색」, 『정통석굴사원 경주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 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문명대, 「골굴사의 석굴구조와 본존불상연구」, 『정통석굴사원 경주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 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_\_\_\_\_, 「혜인사 목조회랑조사진영(초상조각)상의 고찰」, 『고고미술』 138·139, 1978.9.

한동수·이성호, 「경주 골굴암 석굴전실의 건축적 원형고찰」, 『정통석굴사원 경주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 한국미술사연구소, 2016.

문경현, 「원효의 수도처에 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1, 1990.

한상길, 「기림사의 역사와 사상」, 『불교미술』 15, 1998.

James Fergusson, *The Rock-Cut Temples of India*,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Vol.8, 1846.

Joanna Williams, A Recut Aśokan Capital and the Gupta Attitude towards the Past, *Artibus Asiae*, Vol.35, No.3, 1973.

## 골굴 석굴과 인도 카를라 석굴의 비교고찰

주 수 완

골굴사가 인도에서 도래한 승려 광유(光有)에 의해 개착되었다는 창건설화는 석굴사원이라는 형식이 인도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신라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설화로 생각된다. 현재는 석굴 앞에 새롭게 증축된 목조전실이 세워졌고, 그밖에 개방형인 석굴도 있는데, 『산중일기』에 의하면 석굴마다 목조전실을 설치하여 전각들이 바위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했으므로 원래는 더 많은 목조전실이 존재했을 것이다.

규모는 다르지만, 골굴사의 원형은 인도의 카를라 석굴사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카를라 석굴은 입지에서부터 서부 해안가 뭍바이를 통해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해 감포로부터 경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골굴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해 보았다. 또한 자연암반을 뚫은 채, 내부만 증충으로 연결하여 다층의 비하라를 설치한 카를라 석굴의 승방굴 양상은 골굴암에서 증충히 바위 틈에 석굴을 배치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석굴사원이면서도 목조건축의 구조를 강조한 카를라 석굴의 양상과 비교해 보았다. 또한 하나의 차이티야당 혹은 불당이 다수의 승방굴과 조합을 이루는 구성 역시 유사하다. 이러한 양상은 카를라 석굴 외에 바자 석굴, 콘다네 석굴과 같은 초기 양상의 석굴사원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골굴사는 현재 각 석굴마다 작은 불상들을 봉안하여 일종의 불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를라 석굴처럼 수행굴이 중심이고 마애불이 바로 차이티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카를라 석굴 차이티야당의 정면 파사드 구조도 실제로는 목조전각의 구조적 형태를 그대로 석조로 변안한 것이다. 다만 내부의 천정을 구성하는 늑재 부분을 실제 목조로 설치하여 목조건축적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만약 현재 골굴암 석굴들 앞에 이와 같이 목조전각을 설치한다면 바위와 목조의 어울림은 마치 카를라 석굴 차이티야당 내부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낼 것이다.

그 외 카를라 석굴의 비하라 앞에 설치된 스투파는 승려 공양을 위한 스투파로 생각되는데, 원칙적으로 스투파는 재가신도들의 공양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이 원래 대중부가 성행했던 곳이고, 대중부 율장인 『마하승기율』에서는 승려도 불탑공양의 공덕이 있다고 했으므로 승려들을 위한 불탑이 별도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추정해보았다.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Golgul Cave-temple and Indian Karla Caves

Joo, Soowan

The story about the Silla Golgalsa cave-temple was found by Indian monk Gwangyu might be formed from the awareness of Silla peoples that a kind of cave temple was derived from India.

Although these days, Golgalsa is comprised of the caves with or without wooden front room, but according to *Sanjungilgi(Travelogue of Mountain temples)* written by Jung Sihan, most of caves in this site originally had wooden front room and it was looked as hanging on the rock. Even the scale is different, the original form of Golgalsa can be retraced to Indian buddhist caves of Karla near in Lonavala. The location of Karla caves besides by the way from west sea side of Mumbai to east side of inner area is comparable to geographical situation of Golgalsa temple which is between the Gampo of east seashore and Gyungju the capital of Silla dynasty. And it is also similar that the vihara caves of both sites are excavated in the naturally blockish rock surface and these multistory viharas are connected by rock steps.

The most noticeable common point is the combination of real wooden structure and rock cave. Further more, the combination of single caitya shrine with multiple vihara caves was also common conception of both buddhist cave site. These composition is a kind of common style in early buddhist caves in India as Bhaja and Kondane sites. The caves of Golgalsa in which enshrined some buddhist images were supposed to be originally near in conception of viharas.

And the small stupa in front of vihara in Karla is also very unique. This stupa is regarded as for an exclusive use of buddhist monks in Karla caves. Because the stupa was built originally for laymen' s devote and not for monks, so this situation is especially noticeabl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aves were associated with the Mahāsāṃghika sect of Buddhism, so the local monks were very familiar to worship the stupa.

